

알짜배기 국가예산 챙겨

임실군, 1072억원 확보·중앙공모 38개 사업 선정

임실군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가운데 지역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알짜배기 예산을 속속 챙기는 데 성공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2019년도 확보한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원이 늘어난 1,072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이에 힘입어 군은 본예산 최초로 4000억원대 예산을 편성, 각종 현안해결과 지역성장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됐다. 더욱이 이번엔 확보한 국가예산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먼저 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 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필요한 28억원과 사이치천 하천재해에 방수 4억원,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원, 오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원 등 16개

신규사업에 77억2000만원을 확보, 임실군 성장에 밑거름을 제공했다.

중앙공모사업도 대거 선정,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따냈다.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지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국비 578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주목할 사업은 중앙부처 단계에서 부정적으로 검토되었다가 예산 확보에 성공한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달 국회환영회에서 심민 군수가 국토부 상임위 소속 의원과 예정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용호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이뤄낸 발품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군은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과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발빠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중앙부처에서 증기사업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활동 및 예산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대응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군민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내년 본예산 최초로 4천억원대의 재정규모와 함께 역대 가장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도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복한 임실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만큼, 소관 부처의 정책동향을 잘 파악해서 공모나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임실군드림스타트 졸업여행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 '졸업 여행'

임실군 드림스타트 용인 에버랜드서 진행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용인 에버랜드에서 '새로운 시작 임실군드림스타트 졸업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즐거움의 장소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접근이 어려워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계기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했다.

아동들은 에버랜드에서 헤리케인, 더블 락스핀, T엑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등을 타며 스릴을 즐기기도 하고 판다월드, 프렌들리 몽키밸리, 로스트밸리 탐험으로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였으며 하이лай트 공연으로 '블링블링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다양한 포토타임을 갖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특히,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지프를 타고 사파리 월드를 구석구석 탐험하면서 백호, 황호, 불곰들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먹이도 주며 즐겼던 '사파리 스페셜 투어'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졸업여행에 참여한 김모(13)군은 "초등학교 졸업이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드림스타트에서 만난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며 보낸 오늘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전했다.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교 이하)아동 및 가족으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실군에서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제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이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만큼, 소관 부처의 정책동향을 잘 파악해서 공모나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에 350억 규모 변전소 건립

순창군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순창 변전소가 내년 4월 본격 착공한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북지사는 지난 14일 변전소 건립부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창변전소는 풍산면 죽전리 소재 풍산 제2농공단지 입주하게 되며, 송전선로 설치비를 포함 350억원을 투자해 154m 규모의 전력을 저장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말 준공예정인 변전소는

준공 즉시 가동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사조산업, 한국 C&T, 한보요업 등 크고 작은 기업유치와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 조성, 수체원센터 등 굵직한 사업 시행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황송주 순창군수는 순창군내 변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작년 2월부터 한전본사, 한전 전북지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변전소 유치에 앞장섰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6일, 군은 한전과의 줄다리기 협의 끝에 순창변전소

신설계획을 확정받았다. 이후 군은 변전소 설치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한전 본사에는 예산이 조기 확보되도록 적극 건의한 결과 내년 예산이 최근 확정됐다. 이에 군은 지난 14일 한전과 변전소 건립부지 입주계약 체결에 이르는 쾌거를 이뤘다.

황송주 군수는 "그동안 큰 기업들이 순창군내 입주하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순창변전소 건립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성과는 변전소 건립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원예산업 효율적 투자 앞장

남원시는 17일 원예산업분야 생산자단체, 품목별 작목회,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원예, 과수특작,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주요사업 성과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장사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정분야에 직접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농업' 등으로 농촌 비전의 실행과 성공을 위해 2018년에 추진한 원예, 과수특작, 농산물가공 유통분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분석을 통해 특화작목의 지원방안 개선과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업에

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 실질소득 향상으로 남원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8년 농정분야 주요사업인 농업보조금 투명성 공정성 제고방안, 시설원에 생산기반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 과수 전문생산단지 조성확대와 특화된 품목별 과원 규모화,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 농산물 통합마케팅활성화,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 등 9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와 2019년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우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은 "고소득 특화품목 중점육성과 고품질 생산, 농업경영 개선 통해 남원농업의 경쟁력확보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2018년에 원예산업,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춘향골 파프리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 8년연속 최우수, 과수·과수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 5년 연속 S등급, 산지유통 종합평가 4년 연속 A등급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협력사업 우수조직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중국 남경 흥견장 관광인프라 청소년 교류

남원시에 내년부터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수화여행단이 대거 찾아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가 17일 중국의 최대 청소년 연맹인 남경 흥견장 청소년 공익활동 북부중심'과 수화여행단 유치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중국 남경시 흥견장 사무실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이환주 시장과 흥견장 광경 지휘장, 유방 한국사업부 수석대표가 서명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흥견장과의 협력을 통해 남

원시가 중국 수화여행단을 인근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구심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원시의 관광환경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이환주 남원시의회 의장은 "흥견장과의 협력이 남원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호기가 되어 남원시가 수화여행 1번지로서 명실상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한복)는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8대 순창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도 의결했다.

2020~2022년은 해당년도의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증액되고,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유지를 월 110만원과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73만1,000원(연3,27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지방세 전문성 실무능력 향상 교육

임실군 지방세 전문성 실무능력 향상 교육

임실군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향상하고자 최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경관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재량 경영지원실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세무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과 현장실무에 필요한 지방세의 징수에 따른 체납처분의 절차 등을 이해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다. 또한,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교육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 징수활동으로 이어져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부심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